오체투지로 2,500km '순례'

영화 '영혼의 순례길' 5월 24일 개봉

티베트 순례단의 오체투지 순례 조명
장양 감독, 연출, 각본, 제작
중국 역대 다큐영화 박스오피스 3위
부산 등 국내외 다수 영화제에 초청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영화 '영혼의 순례길'은 티베트 불교의 성지 라싸로 향하는 티베트의 니이마 순례단의 오체투지 순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티베트인들의 오체투지 순례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영혼의 순례길(감독 · 장양, 2015)'이 5월 24일 국내에서 개봉됐다.

이마와 양 팔꿈치, 그리고 양 무릎을 땅에 던져 그 힘겨움과 낮은 자세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낮춘 자세로 불 · 법 · 승 삼보께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예법인 오체투지는 티베트인들에게는 경전과도 같은 삶이며 공부다.

영화는 티베트 불교의 성지 라싸로 향하는 티베트의 니이마 순례단의 오체투지 순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순례단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몸을 가장 힘겹고 낮은 곳에 둠으로써 힘겨움과 낮은 곳에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힘겹고 낮은 곳에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있다고 믿는 자신만의 세상을 향해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온 몸으로 다가간다. 더 나은 내생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그들은 묵묵히 길을 간다. 죽기 전에 순례를 떠나고 싶다는 노인, 살생을 너무 많이 했기에 길을 나서야 한다는 백정,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어린 소녀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른 이야기와 서원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읽어간다. 아니, 자신을 읽어간다. 그들이 그렇게 지나간 길은 2,500km, 기도하고, 걷고, 몸을 던지고, 자고, 웃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길어 올리는 순례단의 모습이 티베트의 대자연과 함께 영화를 채운다.

영화 '영혼의 순례길'은 토론토, 부산,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흥행 수익 1억 위안을 돌파하며 중국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른 화제작이기도 하다. 비평가들의 평가로 산정되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 메타크리틱 스코어 90점을 기록하며 언론과 평단 모두를 만족시킨 작품이다. 또한, 황량함 속 아름다움을 간직한 티베트의 사계절을 담아낸 뛰어난 영상미 역시 영화의 매력이다.

영화는 중국 6세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양 감독이 연출, 각본, 제작을 모두 맡았다. 장양 감독은 티베트와 중국 운남 지방에서 약 1년 동안 2,500km의 순례길을 기교 없는 담백한 연출로 담아냈다.

장양 감독은 "나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오래 전 순례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화 제작의 동기를 밝혔다. 장양 감독은 실제로 노인, 젊은이, 임산부와 순례길에서 태어난 4개월 된 아이로 구성된 순례단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캐릭터들을 생각해 두었다. 그리고 티베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끝에 이 모든 인물을 만날 수 있는 망캉주의 한 마을을 찾아내 마을 사람들을 섭외했다. 망캉주 사람들은 영화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했지만, 순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장양 감독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 그렇게 비전문 배우들과 함께 제작에 돌입한 장양 감독은 1년 동안 4천 미터 고도의 길 위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순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장일을 도와야 하는 배우들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의 진심이 모여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장양 감독은 "다큐멘터리식으로 대본도, 전문 배우도 없이 촬영된 이 영화는 내게 힘든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놀라움과 진정한 기쁨을 안겨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중국 베이징 출신의 장양 감독은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다. 1999년 '샤워'라는 작품을 통해 중국 내 흥행은 물론 해외 유수 영화제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으로 떠올랐다. 이후에도 '해바라기', '낙엽귀근' 등 소시민들의 생활상을 통해 숭고한 인간애와 신념을 담은 작품을 꾸준히 선보였다.

서산대사 일대기 UHD다큐로 만난다

BTN, 6월 6일 다큐 '휴정 서산대사' 방영



임진왜란 당시 민초들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승군. 이 중심에는 서산대사가 있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서산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UHD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6월 6일 오후 10시 2부작 특집 UHD다큐멘터리 '휴정 서산대사'를 방송한다.

제1부 '주장자와 칼'에서는 성균관 유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전후의 청년시절 그리고 승병의 중심이었던 노년 등 서산대사의 전 생애를 아우르며 주요 일화를 다큐드라마 형식으로 엮어냈다.

특히, 배우 전무송 씨와 아들 전진우 씨 부자가 함께 출연해 젊은 날의 서산대사와 노년의 서산대사

2016년 4월부터 1년여 제작
전무송 父子 동반 출연 눈길

의 역을 맡아 눈길을 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이 직접 출연해 숭유억불 조선시대 스님의 역할로 나선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제2부 '그가 선택한 땅, 해남'은 서산대사의 유언으로 의발(依鉢)을 모신 두륜산 대흥사를 비롯해 해남의 정신과 문화를 이원규 시인과 역사지리학 전문가 이현군 박사가 성찰 · 소개하는 로드 다큐멘터리다.

연출진은 2016년 4월 기획을 시작해 약 1여 년에 걸쳐 해남 등 전국을 다니며 촬영을 했고, 지난해 5월에는 대흥사에서 제작발표회 형식의 고불식도 진행했다.

연출을 맡은 윤정현 PD는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위인이며 국민으로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며 "주장자 아닌 칼을 들어야 했던 서산대사의 정신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려의 개태사를 깨운다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태사-태평성대 고려를 열다' 국립부여박물관 5. 22 ~ 7. 22

국립부여박물관(관장 · 윤형원)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 이종수), 논산시와 함께 5월 22일(화)부터 7월 22일(일)까지 특별전 '개태사-태평성대 고려를 열다'를 개최한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개태사는 936년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창건한 기념비적인 사찰이며,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眞殿) 사찰로서, 태조의 위업을 상징하는 고려 왕실의 대가람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고려의 번영을 염원한 태조 왕건의 호국 의지와 이를 증명하는 개태사의 현장, 그리고


개태사 쇠북

1376년 개태사에 침입한 왜구를 쫓아 부여 홍산대첩의 승전을 거둔 최영 장군의 업적까지 한자리에 모아 개태사의 위상을 조명한다.

1부 '고려 태조 왕건, 개태사를 세우다'에서는 개태사의 창건으로 새로운 고려의 기틀을 이루고자 한 태조 왕건의 자취와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 사찰로서의 개태사를 다룬다.

2부 '왕실 사찰 개태사의 가람배치와 불교문화'에서는 현재의 개태사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개태사지(충청남도기념물 제44호)의 가람과 발굴조사로 출토된 고려시대 문화재를 소개한다.

3부 '개태사에서 태평성대 고려를 열다'에서는 왕실 사찰의 위엄을 드러내는 개태사 문화재와 관련 영상을 소개한다. 국내 최대의 고려시대 쇠북인 '개태사 쇠북(開泰寺 靑銅金鼓, 지름 102㎝)'과 실제 크기에 준하는 '개태사석조여래삼존입상(보물 제219호)'의 영상을 활용하여 태조 왕건의 뜻을 계승한 왕실 사찰로서의 면모를 소개한다.

4부 '1376년, 개태사와 최영 장군의 홍산대첩'에서는 14세기 후반 왜구의 침입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태사의 위기를 최영 장군이 홍산대첩의 승전으로 극복한 부여군 홍산면의 역사를 다루었다. 박재완 기자

〈삼국유사〉 진본을 만난다

부산 범어사성보박물관 5월 22일~6월 30일



부산 범어사성보박물관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부처님오신날 특별전 '〈삼국유사〉 진본을 만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삼국유사〉 1394년 간행본(보물 제419-3호)의 진본과 인경본, 1512년 간행본의 인경본 등 총 5권이 전시된다.

〈삼국유사〉는 서울대 규장각, 연세대 박물관, 고려대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 중에서는 유일하게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더불어 현존하는 한국 고대 사적(史籍)의 쌍벽으로서, 〈삼국사기〉에서 볼 수 없는 고대 사료(史料)들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이다. 이러한 〈삼국유사〉는 총 다섯 권, 아홉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진본(1394년 간행본)은 4권과 5권이 한 권으로 묶인 책이다.

훼손 등을 고려해 전시된 일이 거의 없었던 1394년 간행본은 현존하는 간행본 중 가장 오래된 간행본으로서, 1512년 간행본의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삼국유사〉의 집필 장소와 저자인 '일연'이 표기되어 있는 간행본 중 가장 이른 간행본이다.

문의 (051)508-6139 박재완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등


위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